

201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자체진단평가보고서

2018. 2.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도 교육대학원 자체진단평가

1. 정량분석을 통한 교육대학원 자체진단평가 개요

□ 분석 대상 지표 선정 및 기준

○ 경쟁력 분석 대상 정량지표 (5개)

지표명	지표기준
(1) 신입생 총원율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현황 중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2) 재학생 총원율	대학정보공시 4-라. 학생총원현황 중 재학생 총원율 (정원내/외 구분 없음)
(3) 중도탈락률	대학정보공시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중 중도탈락 학생비율 (1년 전 이탈학생 수 공시)
(4) 1인당 장학금 지급액	대학정보공시 12-다. 장학금 수혜현황 중 재학생 1인당 장학금 (1년 전 금액 공시)
(5)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대학정보공시 12-나. 교원 강의 담당비율 중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지표의 선정 배경

- 교육대학원은 국가 지정 교원양성기관으로서 3년을 주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외 평가를 받고 있음. '교원양성기관인증평가'는 학교별 교원 정원을 지정하는 중요 평가로서 해당 평가에 포함되는 주요 정량지표들을 자체진단평가를 통하여 사전 진단하고자 함
- 교원양성기관인증평가에 대비하고, 정량지표의 추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2015년 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의 정량지표 기준을 활용함

□ 정량 지표 분석 방법

- 자체진단평가는
 - (1) 본교 교육대학원 자체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최근 3개년도(2015-2017) 자료를 바탕으로 한 종단(longitudinal) 분석과
 - (2) 대외 경쟁력 분석을 위하여 2017년 단일 년도에 대하여 타 교육대학원과 비교한 횡단(cross-sectional)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함

2. 3개년 간 (2015~2017년) 교육대학원 정량지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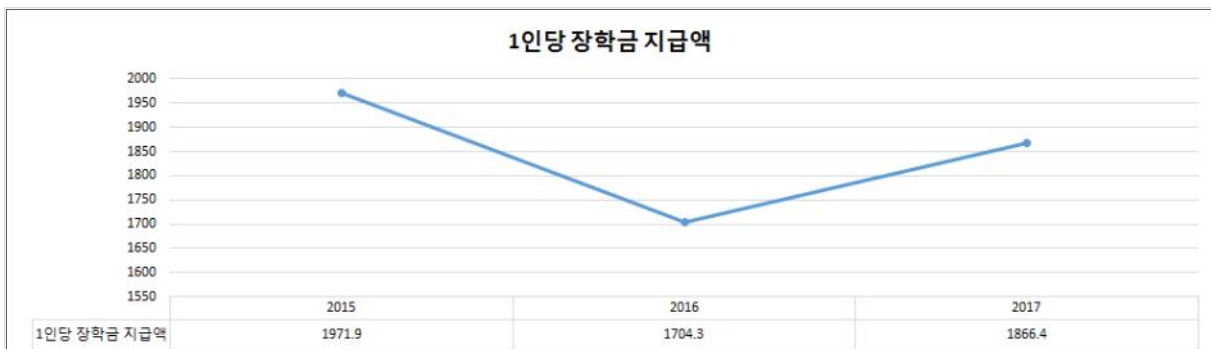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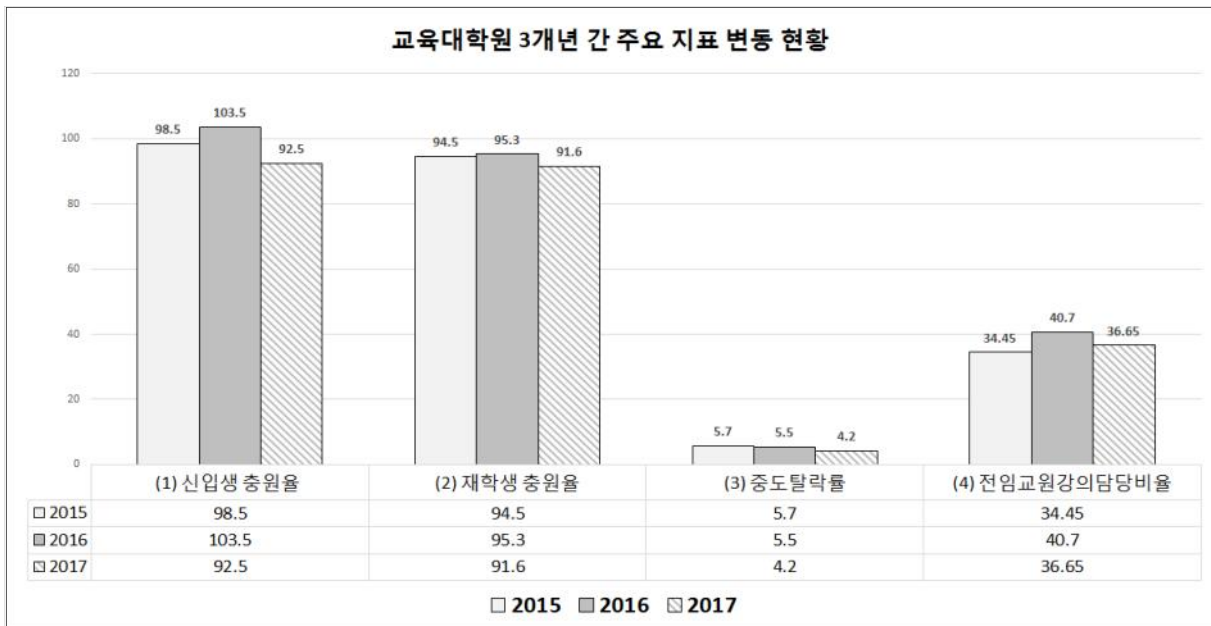
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충원율 등 5개의 교원양성기관인증평가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한 정량분석 결과, 최근 3개년 간 교육대학원의 학생충원율, 강의담당비율 등은 대체로 유지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3개년 간 중도탈락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개선성으로 생각되며, 향후 낮은 중도탈락률을 지속 유지할 필요성 존재
------------	--

□ 3개년 간 정량지표 변동 현황

[교육대학원 연도별 경쟁력 분석 (2015-2017년 평균)]

지표명	2015	2016	2017	3개년 평균
(1) 신입생 충원율(%)	98.5	103.5	92.5	98.17
(2) 재학생 충원율(%)	94.5	95.3	91.6	93.8
(3) 중도탈락률(%)*	5.7	5.5	4.2	5.13
(4) 1인당 장학금 지급액(천원)*	1971.9	1704.3	1866.4	1847.53
(5)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34.45	40.7	36.65	37.27

* (3), (4) 항목은 1년 후 공시되므로, 2014-2016년 탈락률 및 장학금 지급액에 해당



□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신입생 충원율이 2015년부터 낮아진 이유 : 교육대학원 정원이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한 교원양성정원 180명에 석사학위만 취득 가능한 재교육 정원 20명으로 조정됨.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한 재교육 정원은 충원율 50% 정도로 전체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음. 교원 양성정원은 거의 100% 충원율을 보임

3. 2017년 교육대학원 대외 상대평가 분석

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2회 연속 우수 교육대학원으로 선정 (정량 및 정성 지표 종합) ▶ 정량지표 중심의 분석결과로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은 지표별로 전국 121개 교육대학원 중 중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지표 중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평균 이상이며 교수자 전공일치도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둠
-----	--

□ 분석대상 비교군 설정 :

-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 대학원 > 특수대학원 선택 후 조회되는 데이터 중 대학원 명 "교육대학원" 학교 ('폐교' 제외, 특수/유아교육대학원 7개 제외) = 121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1인당장학금 지급액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92.5	91.6	4.2	1866.4	36.65
2017년 전국 평균	80.39	85.28	1.85	1751.19	59.69
전국 교육대학원 순위	51위	55위	58위	60위	-

○ 1) 신입생 충원율

-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전국 교육대학원 평균 82.39%보다 높은 92.5%로 유지되고 있음

○ 2) 재학생 충원율

-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은 전국 교육대학원 평균 85.28%대비 91.6%로 121개 대학원 중 55위에 해당

○ 3) 중도탈락률

-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의 중도탈락률은 전국 교육대학원 평균 1.85%보다 다소 높은 4.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21개 교육대학원 중 58위 수준임
- 교육대학원 중에서는 동덕여대 교육대학원 비롯한 5개 대학원이 중도탈락률 0%를 기록

록하였으며, 8개에 이르며, 1%미만의 대학이 30개에 달하여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음

○ **4) 1인당 장학금 지급액**

-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전국 교육대학원 평균 1,751.19천원이며, 우리대학은 1,866.4천원으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특히 4주기 평가 시 근소한 차이 금액으로 최우수(A)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우수(B)등급을 유지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2016년 결산(2017년 공시)기준 총 지급액 851,080천원 중 교외장학금은 1,500천원, 교내장학금은 849,580천원으로 교내 장학금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학비감면의 성격으로 약 278,000천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외 근로 장학금으로 약 367,747천원이 지급되었음

○ **5)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전국 교육대학원 평균 59.69%의 못 미치는 36.65%로 121개 대학원 중 10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우리대학 교육대학원의 교원 강의담당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개설된 강의는 총 404학점으로 시간강사 242학점(59.9%), 전임교원 148학점(36.6%), 겸임교원 12학점(3%), 기타 비전임교원 2학점(0.5%)를 각각 강의함

4.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종합 진단 결과

□ 등급 기준 점수 및 관련 후속 조치

등급	점수분포 (1,000점 만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A(최우수)	800점 이상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B(우수)	800점 미만~700점 이상	현행 정원 유지
C(보통)	700점 미만~600점 이상	정원·승인인원·양성기능 30% 감축
D(미흡)	600점 이상~	정원·승인인원·양성기능 50% 감축
E(폐지)	500점 미만	폐지

□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평가 결과

- 교육대학원(양성) **B등급** : 현행 유지
- 교육대학원(재교육) **A등급** :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전공명	등급	총점 (1,000)	교육여건 영역(390)	교육과정 영역(300)	성과 영역(240)	특성화 영역(70)
국어교육	B	708	231	256	150	70
미술교육	A	850	343	280	156	70
상담교육	B	741	337	277	108	18
생물교육	D	596	151	256	118	70
수학교육	B	718	225	280	142	70
영양교육	C	656	208	277	100	70
영어교육	B	704	213	274	146	70
유아교육	A	809	337	280	134	57
음악교육	B	786	343	274	150	18
일반사회교육	A	824	331	280	142	70
전자계산교육	C	614	151	250	142	70
중국어교육	A	841	361	280	142	57
체육교육	A	812	343	280	118	70
양성기능 결과	B	749	275	273	140	60
교육심리	A	832	345	278	165	44
재교육기능 결과	A	832	345	278	165	44

□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종합 결과** : 본교 교육대학원은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양성기능은 우수인 B등급**, **재교육 기능은 최우수인 A등급(교육부 장관 표창수상) 결과**를 받음
- **[1-교육여건영역]**
 - 전임교원이 확보된 미술/상담/유아/음악/일반사회/중국어/체육교육전공은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70점) 및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50점), 전임교원 연구실적 최소 기준 충족률(60점)에서 만점을 받음. 반면에 전임교원이 확보되지 않은 국어/생물/수학/영양/영어/전자계산교육전공은 해당 항목에서 점수를 얻지 못함. 따라서 **전공별 전임**

교원 확보여부가 평가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2-교육과정영역]

- 국어/생물/전자계산교육전공을 제외한 전공은 모두 전공 일치하는 교수자로 교과 교육 과목을 운영함

○ [3-교육성과영역]

- 교원임용률(80점) 및 중도탈락학생비율(30점)로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교원임용의 경우 임용고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임용시험 준비자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2017년 20명 합격에서 2018년 현재 30명으로** 평가 이후 지속적 지원을 통해 **매년 임용률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교육대학원의 중도탈락률은 전국 교육대학원 평균 1.85%보다 다소 높은 4.2%를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 중

○ [4-특성화영역]

- 석사학위 수여의 엄정성(70점) 기준을 학위논문 제출여부로 판단하고 있어 논문 대체 학위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상담/음악/교육심리전공은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논문으로 전환하고자 전공과 협의 중

○ [정성평가 영역]

- 발전계획의 적합성(30점→25점), 행정지원의 적절성(30점),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60점), 현장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실적(40점→29점), 수업의 질 관리(60점→58.7점), 학교현장실습 지도활동 실적(50점→48.7점) 등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전공별 점수 향상에 기여함
- 현장방문평가 시 받은 예비교사 수업실연(50점→42점)과 **전화리서치로 진행된 재학생 만족도조사(50점→40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음**

4. 자체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 방안

교육대학원 자체진단 의견(A)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미흡사항	개선방안
1. 지나치게 낮은 전임교원강의담당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별 전임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주기 평가에서 전공별 전임교원 확보 여부에 따라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70점),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50점),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60점),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60점) 등 해당 항목에 1,000점 중 240점(24%)이 배점되어 있어 전체 평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입학인원이 많은 전공에 대해 전임교원을 최소 2명 이상 확보하되 교과교육과목 전공일치자로 임용해야 함 (1명이상 충원해야 하는 전공 : 영어교육, 유아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2. 개설과목 교수자 전공일치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과목 및 교직이론과목의 경우 교수자 전공일치 비율이 각 30점으로 배점되어 있어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강사를 전공일치자로 강의 배정해야 함. 국어/생물/전자계산교육전공의 경우 평가기간 중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교수자로 강의배정을 하여 해당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따라서 매 학기 개설과목에 대한 교강사 정보 입력 시 사전에 전공일치 여부를 파악하여 일치하는 교수자로 배정되도록 전공에 독려함
3. 입학인원 미달 전공 폐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주기 평가에서 생물교육(D등급), 전자계산교육(C등급) 전공의 평가 점수가 타 전공에 비해 낮게 나왔고, 입학 인원도 한 해 평균 생물교육(2명), 전자계산교육(2명)으로 원활한 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미비한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음. 따라서 신입학 모집 시 지원자 수가 5명 미만인 전공은 선발에 제한을 두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전공 재정비를 통해 5주기 평가에 대비함. 단 폐지 검토 시 해당 전공에 배정되던 정원이 다른 전공 정원으로 늘어나므로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 확보기준이 올라갈 수 있음. 이점을 검토하여 전임교원확보가 어렵다면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함
4. 교직담당직원 확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과목 이수학생 수 1,000명 미만은 교직담당직원 확보 기준이 3명이며, 해당 직원들은 순수하게 교직업무만 담당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주안점 · 4주기평가에서는 직원확보에 정성평가를 인정하여 실제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였을 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교직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면 교직업무담당자로 인정하였으나, 5주기 평가부터는 직원확보율에 정량평가만 적용할 것으로 예고됨. 현재 교직운영실 2명은 학부교직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원 교학팀 1명은 교직업무 외에도 입시 및 수업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교육대학원에 교직업무만 진행할 1인 추가배정이 필요함